

전북대, 융합기술사업화 혁신인재 양성 '박차'

작년 출범 후 대학원 과정 융합기술경영학과 신설 운영...부경대 사업단과 협약,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협력

전북대학교 융합기술사업화혁신센터 전문인력양성사업단(단장 권대규·이하 MOT사업단)이 지난 3일 부경대학교 사업단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사업 전환 고부가가치화 실현 DNA 기술 활용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현장 전문인력을 양성 기업들이 혁신 성장을 주도하고 융합기술을 사업화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온라인 비대면으로 열린 부경대 사업단과의 협약은 MOT사업의 지평을 한층 더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 사업단 간 공유와 연대를 통해 공동 교육프로

그램 운영과 기업의 현장 문제 해결 그리고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인·물적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5년 간 국비 24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호남권 최초 융합기술 사업화 혁신인재 양성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대학원 과정에 '융합기술경영학과'를 신설 올해 신입생을 모집해 전일제형과 재직자형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융·복합 시대에 중심한 교육을 위해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를 중심으로 경영학과 경제



학과 행정학과가 협동 운영하고 있다

며, 참여 기관으로는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다.

앞서 전북대 MOT사업단은 지난해 출범 당시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과도 업무 협약을 맺고 초청 강연 등을 진행하는 등 내실을 다졌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양성에도 적극 나섰다.

권대규 단장은 "융합형 인재양성과 기업의 혁신성장을 맞춤형 지원 등을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일"이라며 "이날 협약을 맺은 부경대 등과 긴밀히 연대하고, 또 글로벌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 등에서 내실을 기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워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청소년 사회적가치 실천 영상 공모전

전북교육청,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 살리기 실천 주제

전북도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 살리기 실천 영상 공모전'을 주제로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완주미디어센터 주관으로 미디어리터러리 역량의 종합적 실행을 통한 리터러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미디어리터러리 교육을 통해 비판적 이해 능력을 향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 결과물을 창조하고 공유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역할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공모분야는 극영화, 다큐, 영상뉴스 V-log 등 다양한 형식으로 3분~5분 이내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응모하면 된다. 전북지역 학교, 연구회 등이며, 마

을교육공동체 소속 청소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개팀(가인)의 출품 수 제한은 없다.

공모기간은 오는 24일까지며, 도교육청 전북교육 소식 누리집(https://news.jbc.go.kr) 공모전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주제성, 완성도, 작품성, 독창성 등을 평가한 뒤 10월 중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적 가치 실천 우수 작품 18팀을 선발해 시상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공영 이용 및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063.239.3448) 또는 전주미디어센터 (063.282.7942)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북사랑의장학금 홈페이지 구축 완료

도교육청은 원활한 장학사업 홍보와 투명한 장학금 운영을 위해 '전라북도사랑의장학금(이사장 류정섭)' 홈페이지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전라북도사랑의장학금'은 도내 초·중·고 재학생 중 재능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미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우수 인재로 육성하고자 지난 1982년 설립됐다. 이번 홈페이지(http://office.jbedu.kr/scholarship) 구축은 장학재단의 운영사항과 장학금 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장학금 고를 널리 홍보하기 위함이다.

홈페이지는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전라북도사랑의장학금'을 검색하면 접속할 수 있으며, 장학재단 소개·장학사업·후원안내 등 장학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은 장학사업을 통해 학업우수·재능우수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미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사랑의장학금고는 지난 39년 동안 도내 초·중·고등학생 1만3,900여 명에게 45억4,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특히 2021년 상반기에는 도내 고등학생 7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하반기에도 초·중·고등학생 25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일반재정지원대학 최종 선정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서, 호남·제주권역 평균 점수보다 월등히 높아...3년간 혁신지원사업비 지원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가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최종 선정됐다



남천현 총장

이에 따르면 지난 3일 교육부에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 이중 우석대학교가 호남·제주권역 평균 점수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교육부 평가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발전계획의 성과 △교육 여건 △대학 운영의 책무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 6개 항목 13개 지표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

가로 진행됐다. 우석대학교 관계자는 "기본에 충실한 대학, '열정이 있는 대학', '같이 하는 대학', '신명 나는 대학'을 모토로 학생 중심의 학사 운영을 펼쳐왔으며, 그동안의 노력이 이번 평가를 통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석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혁신지원사업비 약 150억 원을 지원받아 자율혁신 및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도 신입생 및 재학생들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남천현 총장은 "우석인의 열정과 정성이 하나로 결집된 값진 성과"라며 "앞

로도 우리 대학교는 '학생중심대학'과 '실용중심대학'의 정도를 끌어가며 대학의 100년을 준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우석대학교는 지난해 남천현 총장 취임 이후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A등급' 획득과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3차년도 연차평가 '우수' 등 각종 사업 선정과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쌓고 있다.

올해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평가 '최우수대학', 교육부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대학,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지원 사업 4년 연속 전북지역 주관대학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당' 신규 운영기관 지정 등 다양한 국책사업에 대학의 이름을 올렸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 구직정보 코너 구축 완료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내 개설...대체인력 채용 한층 편리하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난 3일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 구직정보 코너'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내에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교육공무직원의 휴가 또는 병가 시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대체인력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나 기관에서는 교

육공무직원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관련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 구직정보' 코너를 활용하면 된다.

또 학교 및 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구직정보를 등록·관리하면 된다.

구직정보 등록은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희망지역·희망직종을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한편 등록하면 2년 간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등재되고 2년 동안 정보 수정이 발생하지 않으면 자동 삭제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 구직정보 시스템이 갖춰지면 학교나 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인력 채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단기)대체인력 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채용 시 1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고려대 등 학술공유 플랫폼 구축

6년간 90억여 원 지원...에너지신산업 세계 최고 인재 양성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에너지신산업 분야 혁신공유대학에 최근 선정된 전북대와 고려대, 서울대, 한양대, 부산대 등 6개 컨소시엄 대학이 학술교류 플랫폼 구축 및 공동 강의의 위를 위해 지난 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북대 혁신공유대학 에너지신산업사업단(단장 안오봉)은 올해부터 6년 간 매년 15억 규모, 90억여 원의 정부지원을 받아 세계 최고 수준의 학부생을 양성하고, 에너지신산업 융합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이를 통해 전북대를 비롯한 고려대, 서울대 등 에너지신산업 최고 권위 교수진이 공동으로 강의를 제작하고 원격 강의의 실현 등을 탐타칭 형태로 교육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수강 수월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오봉 단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 양성을 위해 분야별 최고 대학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혁신공유대학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며 "대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추석

남원사이버장터

http://www.namwonlove.co.kr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남원시